

2023학년도 6월 모의고사 해설지

-기출의 파급효과 국어팀

제작 : 박영호, 최지훈

[4~9]

문장 단위 해설 - #(가) 1문단

(가)

전국 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진(秦)은 분서갱유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기도했다.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李斯)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고,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 학문의 틀을 보여 준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 이에 한(漢)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는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하며,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에 부응한 대표적 사상가는 육가(陸賈)였다.

역사 지식과 학문에 대한 진나라의 분위기가 제시되고, 진나라 멸망 이후에 등장한 육가 사상을 언급합니다. 진나라는 학문이나 역사 지식을 경시했고, 힘의 지배를 숭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나라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육가 사상이지요? 당연히 뒤에서는 진나라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통치 방안을 제시하는 육가 사상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을 화제로 잡고 넘어 갑시다.

(가)

전국 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진(秦)은 분서갱유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기도했다.

진나라의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나라가 전국 시대의 통일을 이뤘는데, 이때 진나라는 사상 통제를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설명해줄 거예요.

그런데 납득하려면 납득할 수는 있습니다. 진나라는 전국 시대의 많은 나라들을 통일하여 혼란을 종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의 사상이 혼재되어 있겠죠? 이 사상들을 그냥 두는 것보다는 당연히 사상들을 통제하는 것이 혼란을 잠재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李斯)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고,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했다.

앞에서 납득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유를 바로 설명해줘요. ‘이사’라는 낯선 키워드가 등장하는데, 수식된 정의로 ‘권력자’라고 설명해주네요! 그럼 가볍게 ‘이사 = 권력자’ 정도로 잡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즉, 진나라의 권력자에게 있어서 역사 지식이나 학문은 비효율적이고 의미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상 통제를 하려고 했나 봅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 학문의 틀을 보여 준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

사실상 재진술 문장입니다. 학문이나 역사 지식을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상을 통제했으니까, 당연히 순자가 제시한 사상 통합과 같은 분위기는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순자의 통합 학문과 진 이사의 관점이 대립된다는 점도 체크해줍니다.

이에 한(漢)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는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하며,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한나라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진나라 이후에 세워진 한나라는, 당연히 이전 세대의 멸망 원인을 검토하고 그보다 나은 통치 방안을 제시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힘의 지배만 강조하던 당시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진나라는 권력(법·제도)을 기반으로 한 통치를 강조했겠죠? 지식이나 학문은 경시하고요. 두 내용을 엮어서 납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과제에 부응한 대표적 사상가는 육가(陸賈)였다.

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상가가 ‘육가’입니다. 뒤에서는 육가의 사상을 설명하겠네요. 그 내용은 당연히게도 역사 지식이나 학문, 권력, 통치와 관련될 겁니다. 육가 사상에 대한 이해가 곧 화제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어떤 통치 방안을 제시했는지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해설 Comment

여기서 육가 사상이 진나라 멸망의 대안으로 등장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육가 사상의 핵심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진나라의 멸망 원인은 힘의 지배를 숭상하고 학문과 역사 지식을 경계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경계하고 이 문제의 대안으로 등장한 육가는, 학문을 강조하고 권력에만 의존하는 통치를 지양했을 것입니다. 문제와 대안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다음 문단에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사고는 아닙니다. 다만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가) 2문단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그는 한 고조의 치국 계책 요구에 부응해 『신어』를 저술하였다. 이 책을 통해 그는 진의 단명 원인을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으로 지적하고, 진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한 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이 중요함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그에게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이었다. 그는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지리·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는 ㉠ 통물(統物)과,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 통변(通變)을 제시하였다. 통물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 인의(仁義)라고 파악한 그는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안하며 인의의 실현을 위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본격적으로 육가 사상에 대한 설명이 제시됩니다. 화제와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니 꼭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진나라와의 비교지점을 잡아주셔야 해요. ‘힘 숭상, 학문·지식 경시 VS 힘 숭상 경계, 학문·지식 중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지점과, 학문과 역사 지식을 중시한다는 포인트를 바탕으로 통물, 통변, 인의에 대한 내용을 납득하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그는 한 고조의 치국 계책 요구에 부응해 『신어』를 저술하였다.

서술의 초점을 ‘육가 사상’으로 잡아주는 문장입니다. 2문단에서는 육가 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그가 저술한 ‘신어’에서는 어떤 방식의 통치가 좋다고 하는지 생각해봅시다. 진나라의 통치 방식과 비교지점이 잡힐 수도 있겠네요. 진나라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 육가 사상이니깐요. 문제 - 대안 구조처럼 읽어주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순자의 학문을 계승했다는 점에서 육가 사상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 순자는 학문 통합을 제시한 인물입니다. 이를 계승한 육가 또한 학문 통합을 강조했겠죠? 사실상 진 이사와 순자의 비교지점이 한번 더 드러나는 겁니다. 순자와 육가를 같은 군집으로 묶어주시면 돼

요. 또, 여기서도 문제 - 대안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나라의 문제가 학문 경시에 있었으므로 그것을 해결하는 육가는 학문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책을 통해 그는 진의 단명 원인을 가혹한 형벌의 남용,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등으로 지적하고, 진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한 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이 중요함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육가가 어떻게 진나라의 문제를 분석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무엇을 중시했는지 설명해주는 문장이예요. 진나라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육가 사상의 핵심을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진나라는 힘의 지배를 숭상했기에, 형벌이나 법률에만 의존한 통치가 발생했을 겁니다. 이외에도 군주의 교만과 사치,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을 문제삼습니다. 학문을 경시했으니까, 군주가 현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신하를 보는 눈도 없겠죠.

따라서 육가는 진나라의 사상 통제를 문제시하며 (역사) 지식과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비교지점(차이점)을 잡을 수 있겠네요. 진나라는 역사 지식이나 학문을 경시했고, 그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문장이 길지만 1문단에서 제시한 진나라의 문제를 재진술 해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체감 정보량은 크지 않아야 합니다. 봤던 내용을 상기하면서 가볍게 읽어주셔야 해요.

그에게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이었다.

육가의 입장에 대한 재진술 문장입니다. 지식과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나라는 역사 지식을 경시했는데 육가는 역사 지식이 현실 정치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차이점도 계속 기억하면서 읽어줍니다.

그는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지리·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는 ㉠ 통물(統物)과,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 통변(通變)을 제시하였다.

육가 사상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역시나 지식과 학문을 강조했다라는 핵심을 중심으로 납득하셔야 해요. 우선 하나씩 봅시다. 통물은 '역사'를 관통하는 천하의 이치, 통변은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 통치 방식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개념입니다. 정의를 읽는 순간, 역사 지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맥락을 캐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해해봅시다. 통물은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이 이치에 따라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합니다. 그렇다면 역사 지식은 통물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겠죠? 역사 지식이 곧 역사를 관통하는 통물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통변 또한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변은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이 통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 지식이 필요하겠죠.

통물과 통변이 정치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 인의(仁義)라고 파악한 그는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안하며 인의의 실현을 위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이번엔 '인의'라는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통물과 통변이 구체적인 '정치 세계'에 드러나는 게 '인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인의라는 개념은, 구체적인 통치 방법 중 하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인의를 바탕으로 한 통치 방식을 강조해요. 힘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던 진나라와 확연히 다르네요. 앞에서 잡은 차이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육가의 핵심을 설명하는 맥락에서요!

또 여기서 '왕도 정치'라는 말을 알고 있으면 더욱 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도 정치는 통치에 있어서 군주의 덕성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덕성은 학문 수양과 연결되죠. 그렇다면 학문과 역사 지식을 강조한 육가의 입장과 엮기 더욱 쉬겠죠? 혹시나 몰랐다면 어휘력의 측면에서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왕도 정치 : 조선 시대 사림이 주장한 인과 덕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

그렇다면 뒤에서는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어떻게 시도했는지 설명하겠군요.고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 역시 ‘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인의’라는 핵심을 놓치면 안 되겠죠? 인의도 같이 생각하면서 읽어 갑시다.

#(가) 3문단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육가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타 사상을 수용하였다.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위와 법가의 권세를 끌어들이었다. 그에게 무위는 형벌을 가벼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의 결과를 의미했고, 권세도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 정치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었기에 원래의 그것과는 차별된 것이었다.

계속해서 육가의 사상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학문과 역사 지식을 강조, 인의, 왕도 정치 등 핵심 포인트만 잡고

읽으면 사실상 다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타 사상을 수용한다는 것이 3문단의 핵심인데, 여기서 사상을 통제하던 진나라와의 차이점을 다시 한 번 떠올려주면 완벽합니다.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육가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타 사상을 수용하였다.

네, 육가 사상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육가는 인의, 유교를 바탕으로 타 사상을 수용했대요. 문단 해설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부분을 읽고 진나라와의 비교지점을 잡아주면 좋습니다. 진나라는 사상을 통제했잖아요! 육가는 반대로 사상을 수용합니다. 메인 사상을 유교로 잡고, 다른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앞에서 순자와 육가를 같은 군집으로 묶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위와 법가의 권세를 끌어들이었다.

유교의 정의를 제시하면서 앞의 내용을 재진술(예시)하는 문장입니다. 예와 질서를 중시하고 교화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다른 사상을 수용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도가의 무위와 법가의 권세입니다. 어떤 식으로 수용했는지 뒤에서 설명해주겠군요.

해설 Comment

여기서 유교의 정의를 바탕으로 육가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가는 힘의 지배를 숭상했던 진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을 중시한 거예요. 유교 자체가 진나라의 통치 방식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예와 질서를 중시 ↔ 힘의 지배를 숭상
교화의 정치 ↔ 가혹한 형벌

이런 식이죠.

그에게 무위는 형벌을 가벼이 하고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의 결과를 의미했고, 권세도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통해 정치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었기에 원래의 그것과는 차별된 것이었다.

네, 역시나 재진술 문장입니다. 유교를 중심으로 다른 사상을 수용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법가의 권세를 수용했다는 점입니다. 무위에 대한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형벌을 가볍게 하고, 군주의 수양 강조는 진나라의 문제를 경계하고 왕도 정치를 제시했다는 맥락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만 권세도 수용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진나라가 힘에 의한 통치를 강조했고 이로 인해 멸망했다고 해서 마냥 배척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권세를 이용한 통치도 수용하긴 하되, 메인은 유교 이념이라는 점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해설 Comment

권세를 수용했다는 점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이 부분 역시 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나라는 힘의 지배를 강조했고 이로 인해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육가는 다릅니다.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군주가 올바르게 신하를 등용할 수 있도록 권세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야 정치권력이 안정될 테니까요. 그래서 무작정 권위를 배척한 게 아니라, 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원래의 그것(진의 권세)'과는 차별되게 수용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유교 사상이 있고요.

#(가) 4문단

육가의 사상은 과도한 융통성으로 사상적 정체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 천명이 결정됨을 지적하고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의 사상이었다. 그의 사상은 한 무제 이후 유교 독존의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였다.

흔한 마무리 문단입니다. 육가 사상을 전무 요약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의의를 제시하네요.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육가의 사상은 과도한 융통성으로 사상적 정체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 천명이 결정됨을 지적하고 인의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의 사상이었다. 그의 사상은 한 무제 이후 유교 독존의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였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육가 사상이 갖는 '과도한 융통성'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융통성은 아마 다른 사상을 수용한다는 포인트에서 파생된 문제이겠죠. 사상적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를 중심으로 수용하긴 하는데, 그게 과해지면 사상계의 부대찌개가 되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국어에서 나오는 페러플레이징인데 이 정도는 가볍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나온 내용을 다른 표현의 키워드로 정리하는 방식은 22.06 재이론 지문에서 등장했습니다. 한번 같이 복습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22.06 (나) 재이론

그에 따르면, 군주가 실정(失政)을 저지르면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음양의 기를 통해 감응한 하늘이 가뭄과 홍수, 일식과 월식 등 재이를 통해 경고를 내린다. 이때 재이는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였다.

양면적 성격의 재이론은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고, 재이가 발생하면 군주가 직언을 구하고 신하가 이에 응하는 전통으로 구체화되었다.

또한 '천명'이라는 키워드가 처음 등장합니다. 납득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만큼 군주의 수양과 통치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땐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부하는 과정이니, 이 부분을 꼼꼼히 이해해 봅시다. 천/명은 말 그대로 하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군주의 정치 행위에 달려있다는 말은 '인의'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의는 통물과 통변을 세상에 구현하는 것이었죠. 그중 통물은 자연의 이치가 모든 일을 포괄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인의 실현을 이루는 통치는 곧 자연의 이치 곧 천명을 구현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군주의 행위에 따라 천명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 1문단

(나)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은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편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와 조선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고려보다 조선이 뛰어난 설득하고자 하였다.

이번엔 역사서 편찬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합니다.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가)와의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은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조선 초기의 역사서 편찬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려 역사보다는 조선이 낫다는 뉘앙스가 필요하겠죠? 고려가 더 훌륭하면 고려 부흥 운동 같은 게 일어날 테고, 조선 건국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의 정당성을 드러냅니다. 참, 이전 국가의 멸망 원인을 분석한다는 맥락이 (가)와 같습니다. 이 부분에도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제 통합형 지문의 핵심은 두 지문을 엮어서 이해하는 것이니까요 |.

편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와 조선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고려보다 조선이 뛰어난 설득하고자 하였다.

같은 말입니다. 고려보다 조선이 낫다는 식으로 역사서를 편찬하고자 한 거예요. (가)와 마찬가지로 역사 지식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연결고리는 보이지 않으니 이 정도만 생각하면서 넘어 가봅시다.

#(나) 2문단

태조의 명으로 고려 말에 찬술되었던 자료들을 모아 고려에 관한 역사서가 편찬되었지만, 왕실이 아닌 편찬자의 주관이 ㉠ 개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태종은 고려의 역사서를 다시 만들라는 명을 내렸다. 이후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신자는 주장과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어 고쳐 쓰자는 주장이 맞서는 등 세종 때까지도 논란이 ㉡ 계속되었지만, 문종 대에 이르러 『고려사』 편찬이 완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은 경서(經書)가 학문의 근본이라면 역사서는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집현전 학자들과의 경연을 통해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쌓아 갔다.

계속해서 고려에 대한 역사서 편찬에 대해 설명합니다. 1문단에서는 (가)와의 연결고리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보입니다. 역사서 편찬과 학문을 엮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곧 역사 지식의 중요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뒷부분에서 세종이 경서와 역사서를 학문과 연결되는 부분에 주목했다면 (가)랑 엮을 수 있어요.

태조의 명으로 고려 말에 찬술되었던 자료들을 모아 고려에 관한 역사서가 편찬되었지만, 왕실이 아닌 편찬자의 주관이 ㉠ 개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태종은 고려의 역사서를 다시 만들라는 명을 내렸다.

네, 고려 역사서 편찬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편찬자 주관에 개입됐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대요. 그래서 다시 쓰고요... 네,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계속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는 점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해설 Comment

여기서 ‘왕실이 아닌 편찬자의 주관’이 개입되었다는 게 문제로 제시됩니다. 그렇다면 왜 ‘왕실’의 주관에 개입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역사서 편찬의 목적과 관련됩니다. 역사서를 편찬하는 목적은 고려와 조선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건국하는 ‘왕실’의 주관은 들어가야 합니다. 조선이 고려보다 낫다는 걸 드러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왕실과 달리 편찬자의 주관에 개입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후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신자는 주장과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어 고쳐 쓰자는 주장이 맞서는 등 세종 때까지도 논란이 ㉡ 계속되었지만, 문종 대에 이르러 『고려사』 편찬이 완성되었다.

앞에서 편찬자의 주관에 개입되었다는 문제가 있었고, 태종이 다시 쓰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쓰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주관의 개입과 관련해서요! 고려의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은 주관에 개입하지 않는 것,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라 쓰는 것은 주관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고려의 용어를 그대로 쓰자 (주관 개입 X)

VS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게 쓰자 (주관 개입 O)

이게 논쟁거리입니다. 논쟁하는 와중에 결국 쓰긴 썼습니다.

그렇다면 ‘고려사’는 어떤 관점에 따라 쓰인 걸까요? 아마 후자의 입장에 따라 쓰였을 겁니다. 역사서를 편찬하는 목적 자체가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고려를 있는 그대로 보기 보다는, 조선의 관점에서 썼을 겁니다. 고려의 용어를 그대로 쓰는 건 조선의 관점에서 고려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유교적 사대주의의 명분에 따르는 것은, 조선의 입장에서 고려사를 바라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사는 아마 유교적 사대주의의 명분에 맞게 쓰였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은 경서(經書)가 학문의 근본이라면 역사서는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집현전 학자들과의 경연을 통해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쌓아 갔다.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가)와의 연결고리를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세종이 역사서를 학문과 연결해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역사 지식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경서는 유교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근본임이 당연해요. 그런데 역사서를 학문의 구현이라고 파악한 것은 특이합니다. 그만큼 역사 지식과 학문을 강조했다는 뜻이에요. 마치 (가)의 육가처럼요! 이 문장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또 디테일한 부분이긴 하지만 경서와 역사서의 비교지점을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가)의 통물·통변 - 인의의 관계랑 경서 - 역사서의 관계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가)에서 인의는 통물과 통변을 드러내는 개념입니다. (나)에서의 경서

는 학문의 근본이고, 역사서는 그 학문을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쌓아갔다고 합니다. 역사서를 학문의 구현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역사 지식을 강조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나) 3문단

이런 분위기에서 세종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은 『치평요람』의 편찬을 명하였고, 집현전 학자들은 원(元)까지의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하였다. 정리 과정에서 주자학적 역사관이 담긴 『자치통감강목』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지만,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 또한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 간다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기존 역사서와 달리 국가 간 전쟁과 외교 문제, 국가 말기의 혼란과 새 국가 초기의 혼란 수습 등을 부각하였다.

이번엔 ‘치평요람’이라는 역사서에 대해 설명합니다. 역시나 역사서를 학문의 구현이라고 생각하고, 역사 지식을 중시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들을 담았을 거예요.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치평요람’을 하나의 예시처럼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세종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은 『치평요람』의 편찬을 명하였고, 집현전 학자들은 원(元)까지의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의 우리 역사를 정리하였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역사서로 편찬했습니다. 그게 ‘치평요람’이죠. 그렇게 중국 역사와 고려 역사를 정리하게 됩니다. 역시나 역사 지식을 중시하기 때문에 남의 나라 역사까지 정리한 것이겠군요. 핵심 포인트를 쥐고 납득합니다.

정리 과정에서 주자학적 역사관이 담긴 『자치통감강목』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했지만,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치평요람을 어떤 식으로 편찬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등장해요. 아마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한 것은, 역시나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위함이겠죠? 조선이 정통하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다만 편찬 ‘형식’ 자체는 달랐습니다. ‘자치통감강목’과 ‘내용’은 유사하지만, ‘형식’은 달랐군요. 각각을 비교지점으로 잡고 넘어 갑시다.

또한 올바른 정치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 간다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기존 역사서와 달리 국가 간 전쟁과 외교 문제, 국가 말기의 혼란과 새 국가 초기의 혼란 수습 등을 부각하였다.

나아가 '올바른 정치의 여부'를 국가 운명과 연결지었습니다. 이것 역시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더불어 조선의 건국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군요. 고려는 망해 마땅했고, 이에 따라 천명이 조선으로 옮겨갔음을 얘기하고자 했을 겁니다. 앞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납득해야 해요. 또 (가)와의 공통점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군주의 올바른 정치와 그것을 천명으로 엮는 관점이 (가)의 육가와 같습니다.

해설 Comment

이 문단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체감하는 지문의 흐름이 달라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치평요람'을 독립적인 정보로 읽었다면 정말 뜬금없는 잉여 정보로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의 예시처럼 1문단부터 나온 핵심 포인트(조선 건국의 정당성, 역사 지식의 중요성)를 바탕으로 읽었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만약 이 문단이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졌다면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나) 4문단

이러한 편찬 방식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삼아 국가를 잘 운영 하겠다는 목적 이외에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전제된 것이었다. 이런 의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곳은 『치평요람』의 「국조(國朝)」 부분이였다. 이 부분의 편찬자들은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며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드러냈고, 이를 통해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이성계의 능력과 업적을 담기는 했지만 이것이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기에는 불충분했기에 세종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부각한 『용비어천가』의 편찬을 지시했다. 이는 왕조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경전과 역사의 다양한 근거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다.

역시나 흔한 마무리 문단입니다. 조선의 역사서 편찬을 조선 건국 정당성과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앞에서부터 언급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납득하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앞에서 캐치하지 못했더라도 내용이 쉽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러한 편찬 방식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삼아 국가를 잘 운영 하겠다는 목적 이외에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전제된 것이었다.

네, 재진술 문장입니다.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위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서를 편찬했다는 말이죠?

이런 의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곳은 『치평요람』의 「국조(國朝)」 부분이였다. 이 부분의 편찬자들은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며 불교 사상의 폐단을 비롯한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드러냈고, 이를 통해 유교적 사회로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네, 조선은 유교 국가입니다. 고려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를 바라보며,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조선 건국의 정당성! 이걸 강조하려고요.

이성계의 능력과 업적을 담기는 했지만 이것이 조선 건국을 정당화하기에는 불충분했기에 세종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부각한 『용비어천가』의 편찬을 지시했다. 이는 왕조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경전과 역사의 다양한 근거를 통해 보여 주고자 한 것이었다.

고려를 비판하기도 하고, 조선 스스로 자신들을 치켜세우기도 합니다. 그게 용비어천가네요. 계속 같은 맥락에서 역사서 편찬에 대해 설명합니다. (조선) 왕조의 우수성과 정통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문 총평

어휘력과 상식적 차원의 배경지식의 중요성이 두드러진 지문입니다. (가)의 왕도 정치, (나)의 경서와 같은 단어들, 그리고 조선이 유교 국가라는 점 등과 배경지식이 있었다면 지문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경 지식과 (특히) 어휘력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르는 단어들이나 나온다면 어휘력을 늘린다는 생각으로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4. (가)와 (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 글을 비교하며 읽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①

- 내용 전개 방식 문제입니다. 지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떠올리면서 선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① (가)는 한(漢)에서, (나)는 조선에서 쓰인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시대 상황과 사상이 책에 반영된 양상을 비교하며 읽는다.

→ (가)는 한나라 시대 육가의 '신어'에 대한 설명이, (나)에는 조선 시대 '고려사', '치평요람' 등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대 상황과 사상도 책에 반영되었죠. (가)는 진의 멸망이라는 시대 상황과 유교 이념이라는 사상이 드러납니다. (나)는 조선 건국이라는 시대 상황과 유교적 사대주의라는 사상이 드러납니다. 정답입니다.

② (가)는 피지배 계층을, (나)는 지배 계층을 대상으로 한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예상 독자의 반응 양상을 비교하며 읽는다.

→ (가)의 신어는 한 고조의 요구로 쓰인 책입니다. 피지배 계층을 대상으로 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나)에 등장한 책들은 딱히 예상 독자가 드러나지 않았죠.

③ (가)는 동일한 시대에, (나)는 서로 다른 시대에 쓰인 책들을 설명하고 있으니, 시대에 따른 창작 환경을 비교하며 읽는다.

→ (가)는 신어를 다른 책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또 (나)에서도 조선 시대의 역사서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④ (가)는 학문적 성격의, (나)는 실용적 성격의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다양한 분야의 책에 담긴 보편성을 확인하며 읽는다.

→ (가)의 신어는 치국 계책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학문적 성격이라기 보단, 통치를 위한 책이라고 보아야겠죠. (나)도 마찬가지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책들이 등장하므로 실용적 성격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⑤ (가)는 국가 주도로, (나)는 개인 주도로 편찬된 책들을 설명하고 있으니, 각 주체별 관심 분야의 차이를 확인하며 읽는다.

→ (나)의 역사서는 왕실 주도로 편찬되었습니다.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려고요! 틀렸네요.

5. (가),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 : ③

-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가)에서는 ‘신어’에 드러난 육가 사상의 내용들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나라와의 비교지점을 잡기도 했어요. (나)에서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관련된 역사서 편찬에 관한 내용들이 등장했죠. 추가로 세부적인 비교지점들도 물어볼 수 있으니 화제와 비교 지점을 중심으로 판단해 봅시다.

① 진의 권력자인 이사는 역사 지식과 학문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 네, 진나라의 경향은 지식과 학문을 경시하고 힘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육가 사상과의 비교지점을 잡기도 한 부분이니 가볍게 지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 포인트 : 핵심적인 비교지점

② 전국 시대에는 『순자』처럼 여러 사상을 통합하려는 학문 경향이 있었다.

→ 네, 전국 시대에는 통합 사상의 경향이 있었으나 진나라가 사상을 통제하면서 이 경향이 약화되었다고 했습니다. 학문을 경시하는 진의 입장을 바탕으로 납득한 내용이었죠?

#선지 포인트 : 납득해야 할 세부정보

③ 『치평요람』은 『자치통감강목』의 편찬 형식에 따라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 세부적인 비교지점을 묻는 선지입니다. 치평요람과 자치통감강목은 ‘내용’에서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형식’ 면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치통감강목의 편찬 형식을 따르진 않았어요.

#선지 포인트 : 세부적인 비교지점

④ 『치평요람』의 「국조」는 고려의 문제점들을 보임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을 드러내었다.

→ 두 책 모두 조선 건국의 정당성의 목적을 갖고 편찬되었습니다. 고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선으로의 변화를 주장합니다. 그렇게 조선 건국을 정당화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나)의 핵심 포인트를 재진술하는 맥락에서 등장했죠.

#선지 포인트 : 재진술 이해하기

⑤ 『용비어천가』에는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드러내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 네, 너무나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기도 하고, (나)의 핵심을 물어보는 선지이기도 합니다. 계속 재진술되던 포인트이니깐요.

#선지 포인트 : 재진술 이해하기

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④

㉠ 통물(統物), ㉡ 통변(通變), ㉢ 인의(仁義)

- (가)에서 육가 사상을 드러내는 키워드들입니다. 학문과 역사 지식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애네들을 이해했어요. 각 키워드들의 정의는 물론 핵심 포인트도 같이 억하면서 이해해 봅시다.

① ㉠은 역사 속에서 각광을 받았던 학문 분야들의 개별적 특징을 이해한 것이다.

→ 통물은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학문 분야의 개별 특징은 완전 헛소리입니다.

② ㉡은 도가나 법가 사상을 중심 이념으로 삼아 정치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 ㉡은 도가나 법가 사상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육가 사상 자체가 유교 이념을 중심으로 하는걸요.

③ ㉢은 현명한 신하의 임용과 엄한 형벌의 집행을 전제로 한 평온한 정치의 결과를 의미한다.

→ 인의는 엄한 형벌의 집행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유교 이념이 중심인데 엄한 형벌을 전제하는 것도 이상하죠. 유교의 핵심이 교화의 정치인걸요. 다른 방식으로 지울 수도 있어요. 지문에 드러난 명시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와 법가를 수용하긴 했습니다. 이때 도가의 무위를 통해 ‘형벌을 가벼이’했어요. ‘인의’는 엄한 형벌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④ ㉠은 군주가 부당한 수양과 안정된 권력을 바탕으로 교화의 정치를 펼쳐야 실현되는 것이다.

→ 네, 육가는 인의를 제시하면서 왕도 정치를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와 법가를 수용하는데, 여기서 도가의 무위를 통해 수양을 강조하고 법가의 권세를 통해 정치권력을 안정을 도모합니다. 정답이네요.

⑤ ㉡과 ㉢은 역사 지식과 현실 정치를 긴밀히 연결하여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전혀 아닙니다. 두 키워드의 정의만 봐도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것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과 ㉢은 인의로 이어지는데, 인의의 핵심은 힘이 아니라 왕도 정치, 유교 이념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틀린 선지예요.

7. 윗글에서 '육가'와 '집현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 고자 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답 : ①

- 육가는 유교 이념을 중심으로 한 학문 통합과 현실 정치에 대한 책을, 집현전 학자들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위한 책을 편찬했습니다. 이 정도는 기억하면서 <보기>로 넘어갑시다.

— <보 기> —

ㄱ. 옛 국가의 역사를 거울삼아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도록 한다.

ㄴ. 옛 국가의 멸망 원인은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지 않고 새 국가로 천명이 옮겨 온 것에 있다.

ㄷ.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새 국가의 군주는 유교에 따라 통치하도록 한다.

ㄱ : 둘의 공통점입니다. 육가는 진나라의 역사를 거울삼아 한나라의 통치 방안을 제시합니다. 진나라에서 힘을 숭상한 것을 경계하고 유교 이념을 내세우죠. 집현전 학자들도 고려의 멸망을 역사서로 편찬하고 이를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연결합니다. 이때 고려의 문제점을 지적하므로 집현전 학자들 또한 조선 통치를 위해 고려 역사를 거울 삼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ㄴ : 둘 다 옛 국가의 멸망 원인을 지적합니다. 육가는 진나라가 힘을 숭상했다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고 집현전 학자들도 역사서를 편찬하면서 불교사상의 폐단 등과 같은 고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또 육가와 집현전 학자 모두 군주의 정치랑 천명을 엮어서 설명했죠. 천명이 정치의 운영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둘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정치 운영이 '아니라' 천명이 옮겨 간 것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ㄷ : 집현전 학자는 확실히 틀렸습니다. 일단 고려에도 불교 사상이 있긴 했습니다.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 유교를 제시한 게 아니라,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유교에 따른 통치를 제시합니다. 육가는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나라는 학문을 경시하고 사상 통제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힘에 의한 통치를 강조했죠. 육가는 이걸 문제로 보았고,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태도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교 통치를 제시했으므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8. <보기>는 동양 역사가들의 견해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②

〈보 기〉

ㄱ. 대부분 옛일의 성패를 논하기 좋아하고 그 일의 진위를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 하지만 진위를 분명히 한 후에야 성패가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한다는 뜻이다.

ㄴ. 고금의 흥망은 현실의 객관적 형세인 시세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며, 사림(士林)의 재주와 덕행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천하의 일은 시세가 제일 중요하고, 행복과 불행이 다음이며, 옳고 그름의 구분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다.

ㄷ. 도(道)의 본체는 경서에 있지만 그것의 큰 쓰임은 역사서에 담겨 있다. 역사란 선을 높이고 악을 낮추며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다.

ㄱ :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위를 객관적으로 먼저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가)에서 육가가 진 멸망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한다는 것이 곧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니깐요.

ㄴ : ㄱ과 대비되는 관점입니다. 옳고 그름(진위 여부)의 판단은 후순위로 두고 있어요. 이렇게 시세를 강조하고 옳고 그름의 구분을 후순위로 두는 것은 (나)의 관점과 유사합니다. 고려의 용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맥락과 비슷합니다. 진짜 고려가 왜 멸망했는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조선 건국이라는 시세를 중시하는 것이죠,

ㄷ : (나)의 세종의 입장과 유사합니다. 세종은 경서를 학문의 근본으로, 역사서는 학문의 구현으로 보았습니다. 즉, 도의 본체(=학문의 근본)가 경서에 있고, 도의 쓰임(=학문의 구현)이 역사서에 있다는 관점과 엮을 수 있습니다.

① ㄱ의 관점에 따르면, 『신어』에 제시된 진의 멸망 원인에 대한 지적은 관련 내용의 진위에 대한 명확한 판별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겠군.

→ 네, <보기> 해설에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멸망 원인을 정확히 분석한 이후에 그 실패에 대해 지적해야 합니다. 진위를 먼저 판별하고 성패를 논해야 하니깐요.

② ㄱ의 관점에 따르면, 『고려사』 편찬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고 한 의견은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하자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한다면 고려의 용어를 있는 그대로 사용했겠죠. 용어를 고쳐 쓰는 것은 주관을 개입시키는 것이니까요.

③ ㄴ의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람』에 서술된 국가의 흥망은 그 원인이 인물들의 능력보다는 객관적 형세인 시세의 흐름에 있다고 보아야겠군.

→ ㄴ은 사람(인물)의 재주나 덕행(능력)보단 시세의 흐름을 강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④ ㄷ의 관점에 따르면, 『신어』에 제시된 진에 대한 비판은 악을 낮추고 징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신어’에서 육가는 진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곧 악(진 문제)을 낮추고 경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⑤ ㄷ의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람』 편찬과 관련한 세종의 생각에서 학문의 근본은 도의 본체에, 현실에서 학문의 구현은 도의 큰 쓰임에 대응하겠군.

→ <보기> 해설에서 언급한 부분 그대로입니다. 생략할 게요.

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③

① ㉠ : 피했다

② ㉡ : 받아들여

③ ㉢ : 밀던

④ ㉣ : 끼어들었다는

⑤ ㉤ : 이어졌지만

[10~13]

문장 단위 해설 - #1문단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만약 혈관 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의 혈병을 혈전이라 한다.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혈액이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출혈이라는 문제가 제시되고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혈액 응고가 제시되었습니다. 이 포인트를 잘 잡아주는 것이 중요했어요. 또한, 이러한 혈액 응고에 비타민 K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니 비타민 K의 역할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을 화제로 잡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물론, 혈액 응고를 설명할 때 피브린, 혈소판 마개 등 개념들을 잘 정리해주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혈액의 역할을 정의해주고 있는데요. (1) 필요한 물질 공급 (2) 노폐물 제거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앞으로 혈액에 대한 내용이 전개될 테니 핵심 키워드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서 혈액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이러한 역할을 떠올려주세요.

만약 혈관 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에서 혈액의 역할을 파악했으니 혈액이 중요하단 건 인지하셨겠죠? 따라서 혈관 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를 통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해요. ‘응고’가 굳어진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따라서 출혈이 생기면 그 부분이 굳어져 더 이상의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것을 거라 생각합니다.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출혈의 해결책인 혈액 응고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여러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으니 이를 잘 정리해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선, 피브린이 모여 섬유소//그물을 형성한다고 하네요. 피브린이 섬유소//단백질이니 어렵지 않죠? 그리고 혈소판 마개도 혈소판이 응집된 것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된 섬유소 그물과 혈소판 마개가 뭉쳐 혈병을 만드는 현상이 혈액 응고네요.

(피브린이 모인) 섬유소 그물 + 혈소판 마개 = 혈병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의 혈병을 혈전이라 한다.

간단합니다. 혈관 속에서 혈액 응고가 일어나면 혈병을 혈전이라고 부르네요. 자연스럽게 혈병은 혈관 밖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해줄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구분되었으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혈병 - 혈관 밖
혈전 - 혈관 속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선, 동맥 경화가 수식된 정의로 제시되었네요.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이게 발생하면 혈관 질환 (혈전 침착, 혈류 감소)이 생기네요. 즉, 문제 상황입니다. 뒤에서 대안이 제시되면 체크해줘야겠죠?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 K가 위에서 제시된 문제(혈관 질환)를 해결하는 요소 즉, 대안이라는 거네요. 따라서 앞으로 비타민 K가 혈액의 응고와 혈액의 원활한 순환에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할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화제로 잡아줄게요!

해설 Comment

조금 더 깊게 생각하자면,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이라고 설명되고 있으니 앞에서 확인한 내용과 연결하여 생각해주시어야 해요.

우선, '혈전 침착'은 혈전이 가라앉아 들러붙는 겁니다. 혈전이 혈관에 들러붙으면 혈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한, '혈류 감소'는 말 그대로 혈액이 흐르는 정도가 감소하는 겁니다. 즉,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첫 문장에서 제시된 혈액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사실 '침착'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면, '혈전 침착'과 '혈액의 원활한 순환'을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혈류 감소'를 이용하여 '원활한 순환'과 연결하여 생각해주시어야 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혈액의 원활한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동맥 경화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쉽게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독해하지 못했다라도 최소한, 맥락상 비타민 K가 해결책이라는 것은 잡으셨어야 제대로 된 독해가 가능했을 거예요.)

#2문단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걸쭉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 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 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다.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한다.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라 한다.

'혈액의 응고'와 관련된 비타민 K의 역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 응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거였어요. 또한, 이를 정리하면서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했어요. 여러 개념들이 등장하고, 정보량이 많아 이를 전부 정리하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피곤한 문단이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다.

1문단 마지막 문장의 재진술 문장이죠? 비타민 K는 혈액의 응고와 원활한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었어요.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지금은 '혈액의 응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혈액의 응고'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겠네요. 비타민 K가 혈액의 응고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니다.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걸쭉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

비타민 K의 정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 혈액 응고에 도움을 주는 물질 정도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문의 흐름상, '혈액 응고'에 무게를 주고 읽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

혈액 응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주고 있네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연쇄 반응'이라고 했으니 앞으로 과정 및 순서가 제시될 거예요.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 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꾼다.

과정이 제시되고 있으니 먼저 정리하고 설명하겠습니다.

- (1) 여러 혈액 응고 인자 활성화
- (2) 프로트롬빈 활성화
- (3) 트롬빈 전환
- (4) 트롬빈 :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전환

길지 않은 문장에 여러 개념들이 등장하고 과정이 제시되고 있으니 정리하고 넘어가셨어야 이후 독해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사소한 포인트지만, 피브리노겐과 피브린의 비교지점도 잡아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피브리노겐은 혈액에 녹아 있고, 피브린(불용성)은 혈액에 녹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브린'은 위에서 확인했었죠?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섬유소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 마개와 합쳐져서 혈병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혈병을 만드는 것이 혈액 응고였죠? 이 문장에서 설명된 과정과 1문단의 혈병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서 혈액 응고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브린'을 중심으로 내용들을 연결해주셔야 해요. 이를 연결하여 다시 과정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1) 여러 혈액 응고 인자 활성화
- (2) 프로트롬빈 활성화
- (3) 트롬빈 전환
- (4) 트롬빈 :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전환
- (5) (피브린이 모인) 섬유소 그물 + 혈소판 마개 = 혈병

#참고 문장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앞에서 확인한 (1)(2)의 과정에 비타민 K가 관여한다는 것을 파악하셨어야 합니다. 정확히는 '간세포'에서 프로트롬빈, 혈액 응고 인자들이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하는 거네요.

생명 지문에서 '위치, 장소' 등은 정확하게 체크해주시어야 합니다. 20.11 이식&이식편 지문 첫 번째 문제에서도 정답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이 지문에서는 레트로바이러스는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고 이를 통해 숙주 세포의 RNA를 DNA로 바꾸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숙주 세포의 역전사 효소'를 이용한다고 제시하여 적절하지 않아 정답 선지가 되었습니다. '역전사 효소'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체크했어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활성화는 비타민 K가 (1)(2) 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의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혈액 단백질이 카르복실화되어 있어야 하네요. 정리하면, '혈액 단백질의 카르복실화'가 가장 우선되는 조건이네요.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카르복실화의 정의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글루탐산(아미노산)이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전환되어서 '카르복실'화인가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라 한다.

내용을 받아들이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단백질입니다. 앞에서 정리한 과정과 관련된 과정이 추가로 제시되었으니 다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 (1)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의 카르복실화**
- (2) **단백질, 칼슘 이온 결합**
- (3) **여러 혈액 응고 인자 활성화**
- (4) **프로트롬빈 활성화**
- (5) **트롬빈 전환**
- (6) **트롬빈 :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전환**
- (7) **(피브린이 모인) 섬유소 그물 + 혈소판 마개 = 혈병**

#3문단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① 비타민 K₁과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② 비타민 K₂로 나뉜다.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₁을 충분히 함유하므로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비타민 K의 종류를 나눠주고 있네요. 두 비타민 K를 비교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단도 짧고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서 자세한 건 한 문장씩 확인하겠습니다.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① 비타민 K₁과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② 비타민 K₂로 나뉜다.

비타민 K를 비타민 K1과 비타민 K2로 구분해주고 있네요. 어디에서 생성되는지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하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비타민 K1 - 식물에서 합성**
- 비타민 K2 - 동물 세포에서 합성, 미생물 발효로 생성**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₁을 충분히 함유하므로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비타민 K1을 획득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네요. 여기까지만 읽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럼 비타민 K2는 왜 있는 거지?”라는 의문이 드셨다면 더 좋았을 겁니다. 일반적인 식사로도 비타민 K1을 충분히 획득하여 혈액 응고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비타민 K2를 굳이 언급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앞에서 비타민 K의 역할을 떠올려 봅시다. ‘혈액의 응고’와 ‘혈액의 원활한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이걸 고려하면, 비타민 K2는 혈액의 원활한 순환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시된 혈액의 응고와 관련된 내용에 관여한 비타민 K는 비타민 K1이고, 앞으로 비타민 K2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될 거라고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4문단

그런데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고, 이는 **칼슘의 역설**과도 관련이 있다.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다. 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 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 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되는데, 이 단백질이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서술의 흐름이 바뀐 것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과 관련하여 ‘칼슘의 역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칼슘의 역설’과 관련하여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 제시되고 있으니 앞의 내용과 연결하여 생각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고, 이는 **칼슘의 역설**과도 관련이 있다.

문장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혈관 건강과 관련되어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칼슘의 역설’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칼슘의 역설’에 대한 내용이 나올 테니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혈관 건강’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으니 앞의 내용과 연결하여 함께 생각해주는 태도가 필요하겠네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그런데’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요. 이는 바로 앞 3문단의 마지막 문장과 연결된 접속사입니다. 바로 앞 문장에서는 일반적인 식사로도 비타민 K1을 획득하여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었죠.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내용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칼슘의 역설’인 거예요. 더 나아가면, 이는 비타민 K2와 관련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2의 역할이 등장하지 않았으니까요!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다.

칼슘에 관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네요. ‘칼슘의 역설’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내용은 간단하네요.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슘 보충제를 섭취합니다. ‘칼슘의 역설’이라고 했으니 이게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고 생각해주면서 넘어갈게요.

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 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문장이 ‘칼슘의 역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장입니다. 칼슘 밀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 문제 때문에 칼슘 보충제를 섭취했는데, 칼슘 농도는 높아졌지만 골밀도가 높아지지 않았어요. 또한, 오히려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서 동맥 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동맥 경화’는 앞서서도 확인한 내용이지요?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즉, 혈액의 원활한 순환을 방해하는 요인이었어요. 이를 비타민 K가 해결했습니다. 정확히는 비타민 K2가 해결하겠죠. 비타민 K1은 혈액 응고를 해결한다고 했으니까요! 앞에서 ‘피브린’이 다시 나왔을 때 앞으로 돌아가서 내용을 연결하여 생각했었죠? 여기서도 ‘동맥 경화’를 보고 앞의 내용과 연결하여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독해하시면 실질적인 정보량이 감소하고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참고 문장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 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되는데, 이 단백질이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다.

‘혈관 석회화’는 동맥 경화 및 혈관 질환의 원인이었죠? 이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MGP라는 단백질이 K-의존성 단백질이고요. 바로 앞 문장의 해설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당연하게 느껴질 겁니다. 비타민 K가 혈관 석회화를 해결해야 하니까요. 정리하면, MGP라는 단백질(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 비타민 K에 의해 활성화되어 혈관 석회화를 억제하는 겁니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사실상 재진술 문장입니다. MGP 단백질은 비타민 K에 의해 활성화되는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었으니까요! 비타민 K가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포인트를 계속 설명해주고 있으니 놓치시면 안 됩니다. 1문단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5문단

비타민 K₁과 K₂는 모두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K₁은 간세포에서, K₂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그러므로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₁이,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주로 K₂가 담당한다.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₁과 K₂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며, K₂가 함유된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발효 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다.

비타민 K1과 비타민 K2의 비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둘의 비교에 초점을 두고 읽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앞의 내용과 잘 연결하여 생각하지 않았다면 조금은 뜬금없는 정보를 설명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항상 앞의 내용과 연결하여 생각해주는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비타민 K₁과 K₂는 모두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K₁은 간세포에서, K₂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비타민 K1과 K2의 공통점은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거네요. 사실 당연하긴 합니다. 둘 다 비타민 K이긴 하니까요. 둘의 차이는 활성화되는 '위치 및 장소'입니다. 앞에서 '위치 및 장소'는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한다고 설명했었죠. 그때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다면 여기에서라도 비교하며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비타민 K1은 간세포에서, 비타민 K2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화되네요. 앞의 내용과 연결하면, 프로트롬빈 및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됐었죠. 이는 '혈액 응고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즉, 비타민 K1은 혈액 응고와 깊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앞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기도 했었죠?

중요한 건 비타민 K2입니다. 간세포 이외의 세포에서 비타민 K2가 활성이 높아요. 그런데, 앞의 혈관 석회화를 억제하는 MGP 단백질은 '혈관 근육 세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즉, 비타민 K2가 MGP 단백질의 활성화에 관여하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앞의 내용과 연결해주셔야 합니다. '간세포 이외의 세포'가 구체화된 것이 앞의 '혈관 근육 세포'인 거예요.

#참고 문장 (1)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참고 문장 (2)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 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되는데, 이 단백질이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이다.

그러므로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₁이,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주로 K₂가 담당한다.

사실상 재진술 문장이네요. 비타민 K1이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에 관여하는 것과 비타민 K2가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에 관여하는 것은 이미 파악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연결하자면,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이 'MGP 단백질'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연결할 수 있겠네요.

비타민 K1

- 식물에서 합성, 혈액의 응고, 간세포

비타민 K2

- 동물 세포에서 합성, 미생물 발효로 생성, 혈액의 원활한 순환, 간세포 이외의 모든 세포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₁과 K₂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며, K₂가 함유된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발효 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다.

그래서 비타민 K1과 비타민 K2를 구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혈액 응고' '혈액의 원활한 순환' 모두 놓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조금 더 차이를 짚자면, 비타민 K2의 경우에는 비타민 K2가 함유된 식품의 섭취를 늘릴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식단으로도 충분한 섭취가 되는 비타민 K1과의 차이점입니다. '일반적인 식단'보다 치즈, 버터 등의 섭취를 늘릴 것을 권장하는 거니까요!

#지문 총평

정확한 독해를 위해 요구하는 것이 많은 지문이었습니다. 1문단에서 흐름(화제)을 잘 잡는 것 / 순서 및 과정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 / 앞뒤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모두 요구하는 지문이었어요. 이 중 하나라도 부족했다면 지문의 내용이 와닿지 않고 정보량이 많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저렇게 읽어도 충분히 많긴 하지만요.. 비슷한 지문으로는 20.06 개체성 지문이 있습니다. 이 지문 역시 화제를 잘 잡아야 하고 / 정보량이 많으면서 비교를 중요시 하고 / 앞뒤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요구하는 지문이었어요. 비타민 K 지문과 함께 복습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①

①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뭉쳐 혈액의 손실을 막는다.

→ 인과관계가 잘못된 선지입니다. 섬유소 그물과 혈소판 마개가 뭉쳐 혈병을 형성하여 혈액의 손실을 막는 거였죠. 그리고 혈전은 혈관 속 혈병이었습니다. 혈전이 형성되어 섬유소 그물이 뭉치는 게 아니었어요.
#선지 포인트 : 화제 중심 읽기, 인과관계, 혈병의 형성 과정

② 혈액의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혈소판 마개가 형성되어야 한다.

→ ①번 선지 해설에서 확인한 내용이네요. 섬유소 그물과 혈소판 마개가 뭉쳐 혈병을 형성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혈액 응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선지 포인트 : 화제 중심 읽기, 혈병의 형성 과정

③ 혈관 손상 부위에 혈병이 생기려면 혈소판이 응집되어야 한다.

→ 계속 같은 포인트를 묻고 있습니다. 혈소판이 응집되어서 혈소판 마개를 형성하였죠?
#선지 포인트 : 화제 중심 읽기, 혈병의 형성 과정

④ 혈관 경화를 방지하려면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게 해야 한다.

→ 혈관 경화는 ‘동맥 경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맥 경화는 이물질이 침착되어 생기는 거였어요. 동맥 경화의 정의를 떠올렸다면 어렵지 않게 파악했을 겁니다. 전형적인 문제 - 대안 구조의 형태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대안은 ‘문제의 원인’을 제거합니다. ‘동맥 경화’의 원인인 ‘이물질 침착’이 제거되었으니 ‘동맥 경화’를 방지할 수 있겠죠.

#선지 포인트 : 화제 중심 읽기, 동맥 경화의 정의, 문제 상황 이해하기

⑤ 혈관 석회화가 계속되면 동맥 내벽과 혈류에 변화가 생긴다.

→ 혈관 석회화는 동맥 경화 및 혈관 질환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동맥 경화는 혈전의 침착과 혈류 감소의 원인이었습니다. 문제 상황 그 자체를 묻고 있는데요.

#선지 포인트 : 화제 중심 읽기, 동맥 경화의 정의, 문제 상황 이해하기

11. 칼슘의 역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②

- 칼슘의 역설은 칼슘 보충제를 섭취했음에도 골다공증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거였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선지를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①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비타민 K₁의 효용성이 감소된다는 것이겠군.

→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칼슘의 역설과 비타민 K1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떠올리며 쉽게 지웠을 거예요. 칼슘의 역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혈관 석회화는 비타민 K2와 관련된 내용이었으니까요. 이를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칼슘의 역설과 비타민 K1의 효용성은 관련이 없었습니다.

②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 조직에서는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겠군.

→ ‘칼슘의 역설’을 파악했다면 쉽게 파악했을 선지입니다. 칼슘이 뼈에 들어가지 않고 혈관에 침착하여 골다공증이 개선되지 못하는 것이 칼슘의 역설이었어요. 즉, 칼슘 보충제를 섭취했음에도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죠.

③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골다공증은 막지 못하나 혈관 건강은 개선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 ‘혈관 석회화’가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였죠? 골다공증을 막지 못하는 것은 맞으나, 혈관 건강이 개선된다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혈관 석회화 때문에 혈관 질환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칼슘의 역설’은 문제 상황이었는데, 혈관 건강이 개선된다니 말이 안 되네요. 이 포인트를 잡아서 푸셨어도 좋았겠습니다.

④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 벽에 칼슘이 침착된다는 것이겠군.

→ 얼핏 보면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선지입니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니 오히려 칼슘이 혈관 벽에 침착되는 것이 문제였으니까요. 다만,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이 침착된다는 것이 틀렸습니다. 칼슘염이 침착하는 혈관 석회화는 비타민 K2가 부족하여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생긴 문제였어요. 따라서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생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 골다공증 개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겠군.

→ 우선, 칼슘이 혈액으로 흡수되어 혈관 석회화라는 문제가 발생하였죠? 여기부터 적절하지 않네요. 또한, 골다공증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였어요. 혈액으로 흡수되지 않는 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1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④

- ㉠ 비타민 K₁ ㉡ 비타민 K₂

- 두 비타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 문제입니다. 앞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라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비타민 K라는 것만 있었고, 차이점은 지문에서 정리한 아래의 내용이었습니다.

- 비타민 K1**
- 식물에서 합성, 혈액의 응고, 간세포
- 비타민 K2**
- 동물 세포에서 합성, 미생물 발효로 생성, 혈액의 원활한 순환, 간세포 이외의 모든 세포

① ㉠은 ㉡과 달리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된다.

→ 대충 보면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선지입니다. 비타민 K1과 비타민 K2의 비교지점을 잡고 대충 파악했다면 오히려 더 낫기 쉬운 선지예요. '㉠은 ㉡과 달리 ~ 간세포'라는 것만 보고 파악했다면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선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K1은 '간세포'에서 합성되는 것이 아니라, 간세포에서 단백질 활성화를 하는 거였어요. 비타민 K1은 식물에서 합성되었습니다.

② ㉡은 ㉠과 달리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한다.

→ 비타민 K는 지방에 녹는 물질이었어요. 비타민 K의 정의로 파악했었죠? 비타민 K1, K2 모두 비타민 K이니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비타민 K가 녹아서 사용될 테니까요.

③ ㉡은 ㉠과 달리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다.

→ 여기서 '표적 단백질'은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을 설명할 때 언급한 내용이에요. 또한, '아미노산 변형'은 카르복실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글루탐산을 감마-카르복시글루탐산으로 바꾸는 것이 카르복실화였습니다. 이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찾아가면 쉽게 파악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르복실화'는 비타민 K1, K2 모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④ ㉠과 ㉡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한다.

→ 여기서도 역시 '표적 단백질'은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너무 당연하죠? 비타민 K1, K2 모두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에 관여했으니까요. 당연히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했을 겁니다.

⑤ ㉠과 ㉡은 모두 일반적으로는 결핍이 발생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 일반적인 상황에서, 결핍으로 인한 문제가 잘 발생하지 않는 것은 비타민 K1이었습니다. 비타민 K1은 일반적인 식단으로도 충분히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K2의 경우에는 비타민 K2가 함유된 치즈, 버터 등을 많이 먹으라고 했었죠. 이는 버터와 치즈를 통해 비타민 K2를 획득하지 않으면 비타민 K2의 결핍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가)~(다)를 투여함에 따라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예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③

— <보 기> —

다음은 혈전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약물이다.

- (가) 와파린 :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함.
- (나) 플라스미노겐 활성화제 : 피브리노겐에는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분해함.
- (다) 헤파린 :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함.

- <보기>에서 '혈전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약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혈액 응고'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정리한 과정을 떠올리면서 선지를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의 카르복실화**

(2) **단백질, 칼슘 이온 결합**

(3) **여러 혈액 응고 인자 활성화**

(4) **프로트롬빈 활성화**

(5) **트롬빈 전환**

(6) **트롬빈 :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전환**

(7) **(피브린이 모인)섬유소 그물 + 혈소판 마개 = 혈병**

(가) : 트롬빈에 작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과정 (6)에 작용하지 않는 거네요. 그리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즉, 과정 (1)부터 작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래의 과정 모두 방해받아 혈전(혈관 속 혈병)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겠습니다.

(나) : 피브리노겐에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하니 과정 (6)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또한, 피브린을 분해하고 있습니다. 즉, 과정 (7)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다) : 비타민 K-의존성 단백질에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과정 (2)에 작용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다고 했으니 과정 (6)에 작용하여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네요.

① (가)의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겠군.

→ (가)는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K에 의해 활성화되는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될 거예요.

② (나)는 이미 뭉쳐 있던 혈전이 풀어지도록 할 수 있겠군.

→ 혈전(혈관 속 혈병)은 (피브린이 모인)섬유소 그물과 혈소판 마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피브린을 분해하네요. 피브린이 분해되면 섬유소 그물 역시 영향을 받겠죠? 따라서 혈전이 풀어질 겁니다.

③ (다)는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겠군.

→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은 과정 (2)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는 과정 (2)에 작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 (가)와 (다)는 모두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겠군.

→ (가)와 (다) 모두 과정 (6)에 작용하였습니다. 즉,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해했어요. 따라서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겠습니다.

⑤ (나)와 (다)는 모두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하겠군.

→ 우선, (나)는 과정 (7)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피브린을 분해하였어요. 따라서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할 겁니다. 그리고 (다)는 과정 (6)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피브리노겐에서 피브린으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 역시 억제되겠죠.

[14~17]

문장 단위 해설 - #1문단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이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에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설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화제로 잡고 읽어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내용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경제학에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게요. 뒤에서 나오면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이어지고 있네요. 정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납득하기 어렵지 않죠? 사건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평가하려면 사건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를 비교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으니 중요하게 읽어주셨어야 했습니다. 우선, 가상의 결과를 관측할 수 없다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셨어야 해요. 말 그대로 ‘가상’의 결과인데 관측할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합니다. 시행/집단이니 사건이 시행된 집단, 비교/집단이니 시행집단과 비교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이 문장 역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중심으로 읽었다면 당연하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 사건 외의 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면, 사건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을 테니까요. 따라서 사건 외의 요인은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할 겁니다.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이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사건 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예시입니다. 앞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이를 통해 파악하셨어야 해요.

‘어떤 사건’ 없이는 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면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사건’ 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사건 외의 변수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에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사건 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라고 하네요. 실험적 방법이 뭔지는 수식된 정의로 설명해주고 있으니 파악하

기 어렵지 않았겠지요? 앞의 내용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두 집단에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는 것이 ‘사건 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독서 지문을 많이 공부한 학생이라면, 앞에서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라고 한 것만 보고 현실에서 가능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이상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너무 당연한데,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두 표본을 정확히 똑같이 구성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심리나 행동은 너무 다양하고, 사회 역시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실험적 방법의 예외 혹은 문제 정도로 잡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험적 방법 이외의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이 제시되겠지요? 실험적 방법은 현실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해설 Comment

1문단 전체가 ‘실험적 방법’의 설명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만약 이렇게 독해하셨다면 다음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실험적 방법을 설명하는 부분은 ‘가령 어떤 사건이 ~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여기입니다. 이 문장 전까지는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실험적 방법’은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의 예시인 거죠. 더 정확하게는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인 겁니다. 따라서 화제를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정도로 잡고 넘어가셨어야 해요. 그래야 다음 내용 독해가 수월하셨을 겁니다.

#2문단

이중차분법은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추세 가정에 근거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중차분법이 실험적 방법의 대안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또한, 이중차분법 역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라는 것도 놓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화제를 놓치지 않고 독해해주셔야 해요.

이중차분법은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중차분법의 정의를 설명해주고 있네요. ‘시행집단에서 발생한 변화 -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 =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맥락상 이중차분법은 실험적 방법을 현실에서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안으로 등장한 겁니다. 따라서 이중차분법은 현실에서 적용되기 쉬울 거라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중차분법이 현실에서 적용되기 쉬울지를 궁금해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추세 가정에 근거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재진술 문장입니다. 우선, 평행추세 가정은 사건이 없을 때,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의 크기가 같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크기가 같은 즉, 변화의 양상(흐름)이 같다는 가정이어서 평행/추세//가정인가 봅니다. 평행한 추세를 가정한 거죠. 이러한 평행추세 가정에 근거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 이중차분법입니다.

실험적 방법은 사건이 없을 때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결과’가 같다고 가정하고, 이중차분법은 사건이 없을 때 시행

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의 크기'가 같다고 가정하는 거네요. 두 방법 모두 사건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사건이 없었다면 같은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은 당연히 두 방법 모두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일 거예요. 다만, 실험적 방법은 이 '상황'을 '결과'로 바라보고 이중차분법은 '변화의 크기'로 바라본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면,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사건 전의 상태를 평균적으로 같게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초기 상태(사건 전 상태)가 다르더라도 변화의 크기만 같으면 되니까요! 반대로, 실험적 방법은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할 거라고 생각해줄 수 있겠죠? 그래야 사건이 없을 때 결과가 같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문장을 통해 실험적 방법의 문제를 이중차분법이 해결하고 있음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적 방법의 문제가 사람이 표본이 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사건 전의 두 집단의 상태를 같게 설정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중차분법은 굳이 사건 전의 두 집단의 상태를 같게 설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현실에 적용하기에 더 용이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 대안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셨어야 둘의 비교가 더 명확하게 되셨을 거예요.

<공통점>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
사건 이외의 요인 통제
<차이점>
실험적 방법 -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
이중차분법 -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의 크기를 비교

#3문단

이중차분법은 1854년에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두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에 주목했다.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 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다.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들을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 내렸다.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에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 데 이 방법이 처음 이용되었다.

문단 전체가 이중차분법에 대한 예시입니다. 앞에서 제시된 이중차분법 설명과 연결하면서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중차분법은 1854년에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앞으로 스노가 사용한 이중차분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다고 생각해주고 넘어가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는 두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에 주목했다.

이 문장도 당장 큰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굳이 체크를 하자면,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이' '물'을 공급받는 회사가 다르다는 점을 잡을 수 있겠네요.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 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다.

이 문장 역시 뒤의 내용을 위한 정보라고 생각하고 체크만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앞의 내용과 연결하자면, 같은 수원을 사용하다가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으니 '수원의 차이'가 발생했네요. 아마도 이게 '사건'이 되겠죠? 또한, 주민들이 수원이 바뀐 것을 몰랐다는 것은 '사건' 이외의 요인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들을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 내렸다.

이 문장을 읽고는 수원이 바뀐 것이 ‘사건’이라고 확실히 파악하셨어야 합니다.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를 비교하고 있으니깐요. 따라서 수원이 교체된 주민들은 ‘시행집단’, 수원이 바뀌지 않은 주민들은 ‘비교집단’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가 효과일 겁니다.

이렇게 사건 전후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들을 비교했다고 하네요. ‘사건 전후 변화들’을 비교하고 있으니 ‘이중차분법’을 적용했다고 인지할 수 있겠죠? 스노가 이중차분법을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하니 당연하긴 하지만요. 이 예시 자체를 이중차분법에 대한 설명을 위해 제시했으니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 전후 변화들’을 비교했다는 것은 사건 전 비교집단과 사건 후 비교집단 사이의 변화의 크기와, 사건 전 시행집단과 사건 후 시행집단 사이의 변화의 크기를 비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집단의 ‘사건 전후 변화들’을 비교하고 나니 콜레라 전염의 원인이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것을 알아냈네요. 따라서 ‘공기의 차이’는 효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겁니다. ‘수원’의 차이만 효과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에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 데 이 방법이 처음 이용되었다.

1문단을 보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자주 사용된다고 제시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걸까요? 그런데, 추가적인 설명은 없이 끝나버렸네요. “자연스럽게 문제에 나오지 않을까?”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제시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문제에서 물어보면 이중차분법을 중심으로 파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문단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예컨대 ㉠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어 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가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차분법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평행추세 가정을 중심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중차분법의 핵심은 ‘변화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를 중심으로 독해해주셔야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평행추세 가정에 근거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이중차분법이니 까요! 당연히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제대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할 수 없을 겁니다.

예컨대 ㉠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어 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는 예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이 ‘사건’, ‘고용 증가 효과’가 ‘효과’네요. 그런데, 시행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일자리 감소 속도가 큰 경우를 제시해주었습니다. 이러면 ‘사건’이 없을 때,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의 크기가 다르겠네요. 시행집단의 고용 감소가 훨씬 컸을 겁니다. 그래서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요. 당연히 ‘사건’의 효과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㉔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앞 상황은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통계적 유사성이 낮은 경우였어요. 그래서 평행추세 가정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통계적 유사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한다고 해서 평행추세 가정이 무조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해설 Comment

정확히는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해도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즉,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가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추세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시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처럼 경기변동에 민감한 변화'일 때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평행추세 가정에 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통계적 유사성 이외의 요인이 변화의 크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때는 '통계적 유사성'만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상황에 따라 평행추세 가정을 충족하는 요인이 다르다는 겁니다.

#5문단

여러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또한 시행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집단을 구성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㉔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주면 되겠네요. 자세한 건 한 문장씩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여러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했을 때,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네요. 사실 당연합니다.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다른 비교집단 여러 개와 비교했는데 결과가 같으면 평행추세 가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겠죠.

또한 시행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집단을 구성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㉔ 줄일 수 있다.

이번에는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이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으면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거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이 비슷할수록 사건 전과 사건 후의 변화의 크기도 비슷할 테니까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네 당연한 문장이죠? 이제 문제 해설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지문 총평

실험적 방법과 이중차분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지문이었습니다. 이를 놓친 학생이라면 내용 이해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또한, 실험적 방법과 이중차분법 모두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어야 해요. 항상 비교를 할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읽어주셔야 함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읽었다라도 '평행추세 가정'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면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단어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지문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문장의 서술이 추상적이거나 비유적인 재진술이 등장하는 것은 최근 평가원 지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니 꼭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①

-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이중차분법과 평행추세 가정이 지문의 주된 내용이었죠? 각 개념들의 정의와 핵심, 그리고 스노의 예시도 같이 생각하면서 선지 판단합니다.

①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 실험적 방법의 정의 그 자체를 묻는 선지입니다. 시행집단의 전후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하는 게 핵심이에요!

#선지 포인트 : 실험적 방법의 정의(핵심)

②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 문장의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선지였습니다. 1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한 것을 보고 이 선지를 적절하다고 고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험적 방법을 사회문제를 다룰 때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다는 겁니다. 적기는 하지만요.

#선지 포인트 : 문제 상황 이해하기, 세부적인 정보

③ 평행추세 가정에서는 특정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다.

→ 평행추세 가정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지문에서 정의를 제시하는 문장 자체도 까다롭고 선지의 표현도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장을 뚫어내고 정의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니 이런 부분에 유의하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선지 포인트 : 평행추세 가정의 정의

④ 스노의 연구에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 스노의 연구는 이중차분법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중차분법은 평행추세 가정에 따릅니다. 즉, '사건 전'의 두 집단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에서 사건 전에 차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선지 포인트 : 예시 이해하기, 평행추세 가정의 속성

⑤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공기의 차이는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 너무나 어려운 선지입니다. 이중차분법은 기본적으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1문단에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할 때는 비교집단과 시행집단 구성에서,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사건 외에는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수원이 바뀌었다는 사건 이외에 '공기의 차이'는 없도록 구성해야 하는 것이죠. 이중차분법 또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점을 잘 체크했어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선지입니다.

#선지 포인트 : 화제 이해하기

15. 다음은 이중차분법을 ㉠에 적용할 경우에 나타날 결과를 추론한 것이다. A와 B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정답 : ⑤

㉠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 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

- ㉠은 평행추세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사건이 없었을 때 일어나는 두 집단의 변화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포인트를 바탕으로 판단해봅시다.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 증가와/보다 (A) 것이다. 그러므로 ㉠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B) 것이다.

A : '프로그램이 없었다면'은 곧 '사건이 없었을 때'입니다. 이때 시행집단에서의 고용률 증가는, 비교집단에 비해 작을 거예요. 시행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의 노동자가 많았으니까요.

B : 이러한 상황에서 ㉠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한다면, 평행추세 가정이 성립하는 경우에 비해 효과가 작게 나타날 겁니다. 시행집단의 상황 자체가 고용률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일자리 파이 자체가 작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평행추세 가정이 성립하면,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일자리 변화가 같을 거예요. 즉, 시행집단의 현재 상황(고용률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완화되므로 평행추세 가정이 성립할 때 고용률 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겁니다.

	A	B
①	클	클
②	클	작을
③	같을	클
④	작을	클
⑤	작을	작을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④

- 역시나 이중차분법을 적용할만한 사례를 <보기>에 제시해 주겠죠? 이중차분법과 평행추세 가정이 지문의 전부이니까요!

— < 보 기 > —

아래의 표는 S 국가의 P주와 그에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1992년 1월 초와 12월 말에 조사한 결과의 일부이다.

P주는 1992년 4월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렸고, Q주는 1992년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 P주 저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시간당 4달러의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임금이 상승했다. P주 고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미 시간당 5달러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

이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고 하자.

집단	평균 피고용인 수(단위: 명)		
	사건 전(A)	사건 후(B)	변화(B-A)
P주 저임금 식당	19.6	20.9	1.3
P주 고임금 식당	22.3	20.2	-2.1
Q주 식당	23.3	21.2	-2.1

- 일단 P주 저임금 식당은 시행집단, P주 고임금 식당과 Q주 식당은 비교집단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이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어요. P주 고임금 식당은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임금 상승이 없었으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비교집단. Q주 식당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없었으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비교집단입니다. 이렇게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을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이제 지문 내용과 함께 선지를 하나씩 판단해 봅시다.

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명이다.

→ 시행집단은 P주 저임금 식당입니다. 이때 평균 피고용인 수의 변화는 1.3명 맞습니다. 사실상 거져주는 선지입니다

- ②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 네, 시행집단과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집단을 구성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줄고 이렇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했어요. 지문 해설에서 납득했던 부분이죠?

- ③ 비교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시행 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의 고용 효과는 3.4명 증가로 평가된다.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두 집단의 고용 인원 변화를 살펴보면 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한 P주 저임금 식당에서 1.3명이 늘었고 시행하지 않은 Q주 식당에서는 2.1명이 감소했으니까 최종적인 효과는 3.4명이 되겠네요. 이중차분법의 정의가 변화량끼리 빼고, 이를 통해 '변화의 크기(사건의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 이니까요.

- ④ 비교집단의 변화를, P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집단의 1991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에 더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다.

→ <보기>의 상황은 고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4 문단에서 예외적인 포인트로 '고용'처럼 경기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는 것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선지에 따라 시기를 바꾸게 되면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약화 되므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예외적인 포인트를 제대로 잡지 않고 대충 "통계적 유사성이 높아지니까 더 신뢰할 만하겠지~" 정도로 생각해서 틀린 학생들이 꽤 될 거예요. 항상 예외적인 포인트를 놓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⑤ 비교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하는 P주 고임금 식당들로 택하는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 네, 여러 비교집단을 구성하고 각각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으면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줍니다. 즉, Q주 식당과 P주 고임금 식당의 사건 전후의 변화가 같다면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17.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정답 : ㉡

- ① ㉠ : 그 사건의 전말이 모두 오늘 신문에 났다.
 ② ㉡ : 산에 가려다가 생각을 바꿔 바다로 갔다.
 ③ ㉢ : 기상청에서 전국에 건조 주의보를 내렸다.
 ④ ㉣ : 회원들이 회칙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⑤ ㉤ :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